하늘을 친구처럼, 국민을 하늘처럼

하늘

The Sky | 2018년 | 39호 |

항공기상청 매거진 Winter

| AMO NEWS | 책임운영기관, 항공기상청입니다.

| SPECIAL THEME | 세계기상기술 엑스포에 다녀와서

| SKY EPISODE | 스무 살로 돌아가는 날

2017년 제34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입상작_겨울이야기_정홍규

책임운영기관

항공기상청

Aviation Meteorological Office

Contents

하늘
The Sky | 2018년 | 39호 |
항공기상청 매거진 Winter

AMO NEWS

02 _"혁신을 선도하여 세계 일류 항공기상서비스로 도약"
04 _책임운영기관, 항공기상청입니다.

SPECIAL THEME

05 _무안공항기상대로, 지금 만나러 오세요!
07 _제16차 WMO 항공기상위원회를 위해 영국 엑서터를 가다
09 _항적 정보를 통한 기상예보의 정확성 향상
11 _세계기상기술 엑스포에 다녀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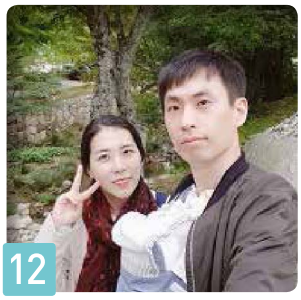
SKY EPISODE

12 _우리가족 첫 나들이
14 _나를 변화시킨 인생 책, 리듬(rhythm)
16 _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며...
18 _두 아이의 일하는 엄마로 살아가기
20 _우리 가족의 문화유산 답사기 '안동 하회마을' 편
22 _너의 이름은...
24 _스무 살로 돌아가는 날
26 _잠자는 숲속의 공주병_클라인-레빈증후군
28 _반려동물과 함께 한다는 것은...
29 _ZOOM IN MOVIE AIRPORT
30 _징크스
32 _활주로

PHOTO NEWS

02

05


12

20

주소 :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 | **전화 :** (032)740-2800
팩스 : (032)740-2808 | **E-mail :** wjcho@korea.kr
발행일자 : 2018년 12월1일 | **편집기획 :** 항공기상청 관측예보과
편집장 : 한윤덕 편집위원장 | **편집위원 :** 이정선, 조원제
편집 : 항공기상청 관측예보과 | **디자인/인쇄 :** 미래미디어 (02)815-0407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항공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 · 상업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l.or.kr

“혁신을 선도하여 세계 일류 항공기상서비스로 도약”

항공기상청장 | **이 재 원**

가을이 깊어간다. 누군가 말했던가 11월은 겨울의 식민지라고? 11월은 분명 겨울이 아니지만 외부에 나타난 현상에 의해 겨울의 느낌이 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은 맞는 것 같다.

식민지 하니 영국의 산업혁명을 떠올리게 된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증기기관과 기계를 사용하는 공산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제 기계공업에서 시작하였다고 한다. 산업혁명은 1760년대 의류직물의 공정에서 시작되어 그 뒤 각종 기술혁신을 일으키며 산업자본주의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1733년 존 케이(John Kay)가 발명한 직조 기계장치가 1760년대 공정에 이용되면서 생산능력이 두 배로 껑충 뛰었다고 한다. 이 때 재미있는 사실은 방적공이 아닌 목수인 하그리브스(James Hagreaves), 이발사이며 가발제조업자인 아크라이트(Richard Arkwright), 방적공 크럼프턴(Samuel Crompton) 등 비전문가들이 방적기계를 개량하였다고 한다. 즉 이러한 기계는 작은 일터에서 분업과 협업으로 움직이는 대규모 공장으로 바꾸어 놓은 계기가 되었고, 19세기 후반에는 소규모이기 하지만 젠트리가 금융, 보험, 농장에 투자해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 이것이 긴 안목의 세계경제를 바꾸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되었다고 한다.

항공기상청은 2017년 4분기부터 2018년 현재까지 ‘혁신을 선도하여 세계 일류 항공기상서비스로 도약’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를 HIGH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전략목표, H(High-Tech)는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최적의 항공기상현상 감시를 위한 입체적 종합 항공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고품질 항공기상 관측정보를 생산함으로써 항공업무 관련 종사자에게 협력적 의사결정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전략목표, I(Initiative)는 선제적 항공기상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수요자의 위험기상 대응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하는 것이다.

세 번째 전략목표, G(Growing-Up)는 책임운영기관 재정자립도 향상 및 국제 요구수준의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하여 항공기상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지속 성장을 위한 책임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네 번째 전략목표, H(Heart-Touching)은 고객감동의 '심쿵' 항공기상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항공기상정보를 실시간 전파(SNS)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HIGH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항공기상청은 2018년 한 해 동안 쉼 없이 달려왔다. 하지만 여전히 달려가야 할 경로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장애물들이 남아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먼저 항공기상청 내부 상호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국의 산업혁명에서 공포의 외인구단(?)과 같은 비전문가들의 역할과 협업이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외부 이해관계자(국토교통부, 국방부, 항공사 등)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협업해야할 것이다.

2019년 이맘때 서로가 잘했다 자축하는 모습을 그려보며, 항공기상청 115명 모두 열심히 달려갔으면 한다. 모두 HIGH팅 합시다.

항공기상청장 **이 재 원**

기획운영과 | **이 효 미**

책임운영기관, 항공기상청입니다.

항공기상청은 기상청의 소속기관이며 책임운영기관이다. 책임운영기관은 1988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여 성공을 거둔 제도로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 일본 등에서 연이어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도 1999년「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 51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항공기상청은 2000년 1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고 2001년 시행되어 책임운영기관 초창기 멤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책임운영기관이란 무엇일까?

책임운영기관은 책임운영기관법 제2조에서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책임운영기관은 보통의 행정기관과 달리 인사·조직·예산 등 운영에 대폭적인 자율성을 갖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처럼 책임운영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목적은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있다.

이러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은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행정안전부로부터 매년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보상 또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항공기상청에서는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장점을 살려 자율성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항공기상청의 비전인 혁신을 선도하여 세계 일류 항공기상서비스로 도약하기 위하여 HIGH(High-tech, Initiative, Growing-up, Heart-touching)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항공기상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으로써 최상의 항공기상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115명의 항공기상청 직원은 365일 24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안공항기상대로, 지금 만나러 오세요!

무안공항기상대 | **박 한 나**

무안국제공항은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를 중심으로 '무안국제공항 연합 봉사단'을 결성하여 공항 상주기관의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의 봉사활동 및 재능기부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두드러진 활동으로는 각 기관의 재능기부를 통한 미래 항공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전라지역의 학생 대상의 직업 체험 견학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무안공항기상대에서는 견학 프로그램 중 '기상 과학문화 확산'이라는 목표로 항공기상업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견학 대상은 노란 병아리 같은 쫑알쫑알 입모양의 유아(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생과 항공운항학과 · 서비스학과 등 항공 전공생들이 주로 참여한다. 무안공항기상대를 방문하는 단체견학은 연 평균 10~15회이며, 근래에는 인근 지방에 항공운항학과 및 서비스학과가 개설되면서 항공과 관련한 전공대학생의 견학이 증가하고 있다.

견학 교육은 '기상, 관측이란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으로 연다. 그리고 가장 먼저 기상청, 항공기상청, 그리고 무안공항기상대에서 수행하는 항공기상업무(항공기상 관측, 공항예보, 공항경보, 항공기상 장비)를 교육한다. 또한 무안국제공항의 지리적인 특성 설명을 통해 무안국제공항에 왜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지, 겨울에는 서해안에 강풍을 동반한 눈이 오는지, 겨울철 강한 북풍이 불기 때문에 활주로의 방향이 북-남(R01, R19)의 방위인지 등을 소개한다.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청소년이 방문을 하면 항공기상이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미치는 중요성, 그에 대한 일원으로서의 자부심을 소개한다.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 기상청에 입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며 미래 일자리 정보제공의 소통 시간을 갖는다.

그런데 가장 어렵기도 하고 진땀나는 견학 대상은 지식이 가장 뛰어난 대학생들도 아닌 바로 유아의 경우이다. 우선 들어올 때부터 복작복작,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질문들, 내가 한번 질문하면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답변, 조금만 지루해도 다 드러나는 표정들이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제는 나도 한 아이의 엄마가 되다보니 "자 친구들 박수 세 번", "쉿!" 손가락 표시로 시선을 다 잡고 집중할 수 있는 방법도 터득하게 되었다.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 할 때에는 "날씨는 무엇일까요?"로 시작하여, 항공기 안전 운항에 영향을 끼치는 기상현상을 주로 설명한다. 그리고 기상청에서 제작한 어린이기상교실의 만화동영상을 통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 하지 않던가, 무안공항기상대의 예보사 자리로 이동하여 어떤 방법을 통해 공항예보를 생산하는지, 또한 모니터링 하는 기상자료(위성, 레이더, 지상바람벡터)를 소개하면 항공기상 현업만의 전문성을 소개 할 수 있다.

비록 짧은 시간의 체험이긴 하지만, 견학을 통해 항공기상을 접해본 학생이라면 미래의 기상인 이 탄생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해 본다. 그리고 무안공항기상대 견학이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책임감도 가져본다.

미쳐 알지 못했던 공항대합실 뒤에 숨겨진 무안공항기상대로 만나러 오세요!

제16차 WMO 항공기상위원회를 위해 영국 엑서터를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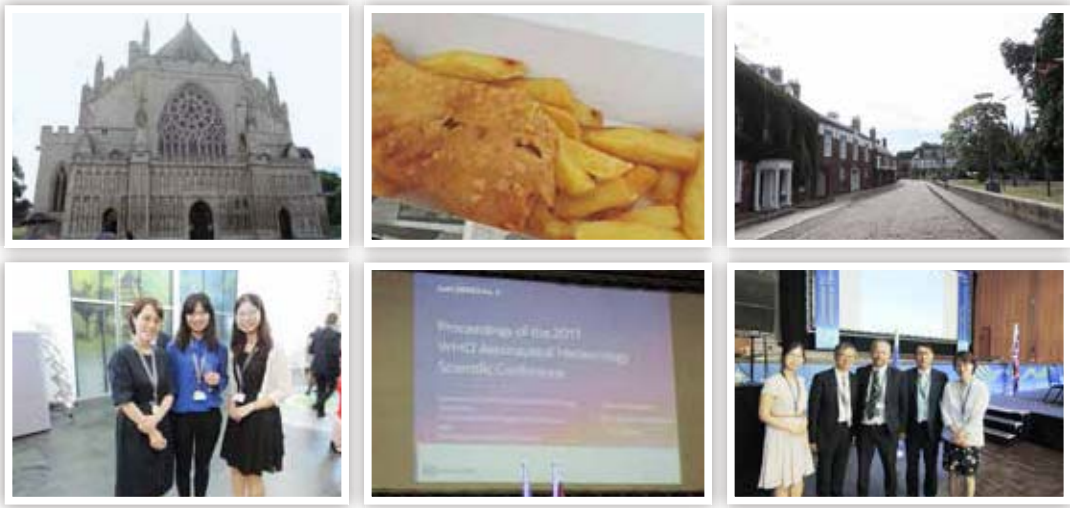
관측예보과 | **변 가 영**

WMO, 세계 기상기구는 1950년 기상관측을 위한 세계의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의 기상학 전문 기구이다. 이 기구는 산하의 여러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항공기상 위원회(Commission for Aeronautical Meteorology, CAeM)이다. 항공기상위원회는 항공기상과 관련된 WMO의 활동에 대한 업무를 조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항행안전을 위한 기상분야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쉽게 말하면, 기상 업무와 항공 업무를 연결하는 세계적 연합체이다. 항공기상위원회에서는 4년마다 총 회의를 개최하는데, 올해는 바로 그 회의가 열리는 해였다. 제 16차 항공기상위원회에 참가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표단이 출발한 것은 막 폭염이 시작되려는 7월 말이었다.

특히 이번 제 16차 항공기상위원회 총회의 개최지는 영국의 엑서터(Exeter)였다. 엑서터는 기상청과도 인연이 깊은 곳이다. 기상청과 교류하는 일도 많고, 영국의 기상모델을 한국에서 최적화 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엑서터에 위치한 Met Office(영국기상청)은 전 세계 기상청의 훌륭한 롤 모델이 되고 있다. 처음 가게된 WMO 회의가 엑서터에서 개최되는 회의라는 것이 나에게는 의미 깊은 일이었다.

엑서터는 비교적 선선한 날씨였다. 한국은 폭염으로 나날이 기온이 올라간다는데, 엑서터는 가을 날씨정도여서 아침저녁으로는 긴팔 옷이 필요할 정도였다. 영국 날씨가 변덕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걱정도 많았는데, 예상외로 회의가 개최되는 7월 23일부터 27일까지의 기간 내내 날씨는 쾌청하고 서늘했다. 덕분에 회의에 참가한 국가의 대표들도 출퇴근길 표정이 밝은 편이었다. 회의에는 49개국의 국가 대표단이 130명가량 참가했다. WMO에서 주관하는 회의였기 때문에 뒤에는 6개국 통역사들 또한 자리해있었다. 세계 각국이 모인 만큼 그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최대의 효율과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도 신기했다. 새로운 세계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항공기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야가 더욱 넓어지는 기분이었다.

항공기상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은 항공기상 전문가가 듣기에도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다. 항공기상 전 분야에 걸친 내용을 다루기 때문이기도 하고, 4년마다 개최되다 보니 이전의 회의 내용보다도 발전된 내용이 많아 그간의 자료를 모두 정리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회의에 가는 참가자도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항공기상의 경우 기술적인 정보 교류가 많아서 관련 자료에 대한 예상 논의점 또한 사전에 숙지하여야 했다. 이렇게 큰 회의를 처음 가보는 나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많아서 불안하



기도 했다. 오랫동안 영어를 배워왔지만 회의 중 흘러가는 빠른 대화를 모두 알아듣는 것은 힘들어서, 예습을 한 내용과 복습을 할 내용을 되새기는 것은 시험기간의 열의를 방불케 했다. 대한민국의 항공기상 대표단으로 가는 것이라는 부담감도 있었다. 함께 간 대표단 모두가 합심해 회의 내용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200페이지가 훨씬 넘는 영문 사전자료들을 보면서 내가 모르던 항공기상의 역사를 알아가는 것도 큰 경험이 되었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항공 교통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천공항은 물론이거니와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원래 항공교통량이 많았던 유럽, 미국까지, 세계의 공항은 최신 첨단 기술이 집약된 각 국가의 얼굴로서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외국에 첫발을 디디는 사람들의 첫인상과 마지막 인상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곳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항공기상 서비스, 항공교통관리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해 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WMO 항공기상위원회의 목표도 항상 세계적 발전에 발맞추어 항공기상을 더욱 발전시키고, 그 자료 전달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항공기상이 나아가야할, 발전해야할 방향이 여러 가지라는 점도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최근 인천공항의 발전과 더불어 항공기상업무가 여러 가지로 고도화 되었고, 세계에서도 한국의 항공기상 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기상 강국이었던 일본과 최근 홍콩, 대만과 함께 뚜렷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 중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서비스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항공 수치모델을 개발하는 등 미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갈 길이 무한히 뻗어 있다는 점이 항공기상업무를 하는 직원으로서의 사명감과 부담감을 동시에 주는 것을 느끼며, 또 한편으로는 4년 뒤의 항공기상위원회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떤 발전된 점을 세계에 자랑스럽게 내보일 수 있을지 기대가 되기도 했다.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대한민국 항공기상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항적 정보를 통한 기상예보의 정확성 향상

한국항공대학교 | **임은진, 박민정, 최자현**

올해 초, 유럽에서 즐겁게 지내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에 갔지만 갑작스러운 강설로 인해 항공편이 지연되어 밤늦게 한국에 도착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보와 다른 날씨로 인해 항공기의 지연과 결항 또는 난기류로 불편을 겪었던 경험들을 뉴스에서 접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기상예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방법은 '항적 정보'를 이용하여 기상예보의 정확성을 향상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기상예보의 과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요소 관측 및 보정→수치예보모델에 적용하여 미래의 대기 상태를 계산→예보관이 예측한 날씨를 발표] 순으로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는 첫 번째 단계인 '관측'입니다. 기상예보의 원료가 되는 관측 값에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수치예보모델의 성능이 우수하고, 예보관의 실력이 좋더라도 기상예보의 정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 관측값 중에서도 '상층'대기의 관측 값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층대기는 지상의 대기를 지배하므로, 기상예보 시 상층대기의 관측 값을 활용하여 상층대기를 정확하게 분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층대기 관측 값의 자료 수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현재 상층대기 관측은 주로 존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 약 11,000개의 지상관측소가 있지만, 상층관측소는 약 1,300개에 불과합니다. 관측소의 수가 너무나 적어 얻을 수 있는 자료 수가 매우 부족하며 자료 수 부족 외에도 비용, 실시간이 아닌 자료 등의 문제로 인해 실 관측 값이 아닌 추정해야 하는 기상 값이 많습니다.

세계 전역을, 높은 고도까지 자유롭게 비행하는 항공기를 통해 상층대기의 관측 값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항공기에는 'ADS-B'와 'Mode-S EHS'라는 장비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 장비들을 활용하면 앞서 말한 현 상층대기 관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ADS-B(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는 '자동종속감시시설'로, 항공기에 장착된 위성항법시설(GNSS)수신기 및 GPS로부터 얻어진 자신의 위치정보(위·경도) 및 기타 정보를 데이터 링크를 통해 규정된 시간 간격에 따라 지상/공중에 방송하는 시설입니다. Mode-S EHS는 지상에 있는 '2차 감시레이더(SSR, Secondary Surveillance Radar)'가 비행 중인 항공기에 질문을 한 후 Mode-S를 가진 항공기가 응답을 하면, 다시 항공기에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Mode-S EHS에서는 진대기속도(TAS), 대지속도(GS), 마하수, 항공기의 방향(MH)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항적 정보'라고 하는데, 항적 정보란 항공기가 이동한 실제 경로를 통해

얻은 정보를 말합니다. 기상청은 이 항적 정보를 가지고 기상예보에 필요한 기상값(기온, 풍향, 풍속)을 계산하여 예보를 생산합니다.

이 두 장비는 항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상에 보내기 때문에 기상예보에 필요한 기상값을 더 빠르게, 더 자주 얻을 수 있어서 현 상층기상관측 방식인 하루 2회 관측 문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는 세계 전역을 비행하기 때문에 관측소가 없는 지역의 관측 값을 얻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두 장비를 항공기에 장착하는 것이 의무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 때, 기상 데이터가 예보 생산에 쓰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이 더 필요합니다. 현재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rological Organization)는 'GTS(Global Telecommunication System)' 통신망을 통해 전 세계의 기상 값을 취합하여 기상예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기상 관계자들은 앞서 말한 상층기상관측값 확보시스템을 현재의 전송 방식에 적용하기 위해서, 기존 방식으로 수집된 관측 값이 아닌 항적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층기상관측값 확보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기상예보의 정확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세계기상기술 엑스포에 다녀와서

정보기술과 | **송인설**

세계기상기술 엑스포는 매년 개최되는 대규모 전시회로, 기상분야에 몸담은 사람이라면 꼭 한번 가고 싶은 세계적인 행사이다. 올해 8회째를 맞는 세계기상기술 엑스포는 10월 9일부터 10월 11까지 3일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되었으며, 전세계 200여개 기상관련 기업체와 기관이 전시에 참가하였다.

항공기상청에서는 이번 엑스포에 참여하여 항공기상관측 기술 및 신기술 장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항공기상 관측장비 및 시스템과 관련된 기관과 기업체의 전문가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이루고자 하였다. 또한, 이번 엑스포는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기상기구 기상측기 및 관측법 위원회 기술컨퍼런스(WMO CIMO TECO-2018)'과 함께 진행되어 관측과 계측에 관한 국제 정책 및 동향을 함께 파악할 수 있었다.

항공기상청에서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공항기상관측장비(AMOS)와 윈드시어탐지장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항공기상 관측장비와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항공기상데이터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기술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스마트폰이나 드론 등 새로 부상하는 관측 소스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활용과 인공지능 기계학습 등 현재 개발 중인 신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논의를 했으며, 기술 개발자와 바로 만날 수 있어 기상 관측 기술 현황과 동향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전세계 기상관련 기관과 기업체의 전문가와 연락점을 만들고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항공기상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목적에 부합하는 관측망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우리가족 첫 나들이

무안공항기상대 | 김성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말했다.

"100일 동안 고생했어. 앞으로 20년만 더 고생하자"

2013년 늦가을 결혼한 지 어느덧 4년이 되던 지난해 가을, 우리 부부에게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보물이 찾아왔다. 그리고 무더위가 찾아오던 올해 여름, 나에게는 원빈보다 잘생긴 아들내미가 세상 빛을 보았다.

김주원.

사주가 정말 좋다시면서 할아버지께서는 첫 손자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한두 시간마다 잠에서 깨 밥달라 응애응애, 기저귀 갈아라 응애응애, 토나온다 응애응애. 물론 힘든 만큼 우리의 소중한 아이가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행복도 컸다. 그렇게 벌써 100일이 지났다. 이제 슬슬 엄마아빠 얼굴을 보고 미소도 지어보이고, 옹알이도 하기 시작한다. 사람 구실을 조금이나마 하는 듯하다.

여름도 가고 짧은 가을이 다 가는 게 아쉬워 우리는 나들이를 가기로 했다. 아직은 세 시간마다 기저귀도 갈고 밥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먼 곳은 힘들어 가까운 해남의 대흥사에 다녀왔다. 주원이에게는

추석에 광주 집에 다녀온 것 말고는 가장 멀리 떠나는 여행이었다.

금강산도 식후경, 우선 대흥사 입구에 있는 쌈밥 집을 들어갔다. 자리에 앉은 지 얼마되지 않아 아이가 울어대서 살펴보니 기저귀에 오줌이 넘쳐 바지가 젖어있다. 첫 가족 나들이에 신나서 기저귀를 똑바로 채우지 못했나 보다. 아기 똥은 냄새도 안난다지만 남의 아기도 그럴까, 나는 얼른 아이를 들쳐메고 차로 가서 기저귀를 갈고 달래준다. 입으로 들어간 지 코로 들어간 지 모를 점심식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대흥사를 둘러보았다. 절 입구로 향하는 길에는 키 높은 나무들이 포근하게 방문자들을 감싸 안아주고, 길옆에는 작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 마음속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었다. 절 안에는 대웅보전 · 서산대사기념관 · 보물로 지정된 응진전전 3층석탑 · 북미륵암 3층석탑 · 국보로 지정된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 등이 있다. 비록 그 의미가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지는 못해도, 그저 오랜만에 좋은 공기를 마시고, 흙길을 밟아보니 그 기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았다. 절 안에서 계곡물을 옆에 두고 맛 본 해물파전도 최고였다.

물론 자느라 아무것도 못 본 아들에게는 미안했지만 우리 부부는 몇 달만의 외출에 한껏 날아갈 듯한 좋은 시간이었다.

나를 변화시킨 인생 책, 리듬(rhythm)

울산공항기상대 | 김기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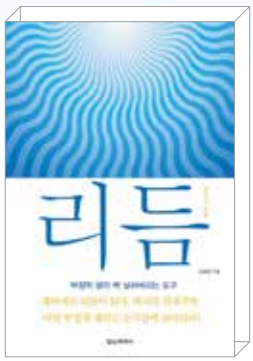
요즘 인생 샷! 인생술집, 인생영화처럼 "인생"이란 단어를 앞에 붙이면 내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 또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가장 인생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 끝에 나는 책 한권을 머리에 떠올렸다. 평소 독서를 그리 즐겨하지 않지만 이 책을 통해 독서의 재미와 유익함을 알게 되었고 또 나 스스로 느끼기에 큰 생각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계기가 된 것에서 이 책이 나에게 준 영향력은 "인생"이라는 단어를 붙일 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바로 리듬(rhythm)이라는 책이다.

제목에서 연상되는 것은 음악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내용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소통 즉 살아가는 일상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는 흔히 틀린 것과 다른 것에 대하여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을 한다. 인터넷,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말이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진 그냥 그저 그런 당연한 말에 불과했으며 "그걸 누가 몰라서 안하나?"라고 생각했었다. 이 책은 그런 당연한 것들 알고 있던 것들을 이해시키고 받아들이게 하며, 일상적인 것에서의 신세계를 알려준다.

리듬(rhythm) 그것은 음악에서와 같이 생각에서도 리듬을 맞출 수 있다고 한다. 생각의 리듬을 맞추면 나 또는 타인의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개된다는 원리에서 시작한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리듬을 통해 내안에 있는 것이든 타인의 것이든 부정적 생각을 일단 제거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

요컨대 화가 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사람이 화내는 것에 반응하여 같이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그냥 회피할 것인가 개인의 성격과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이를 리듬을 통해 제어하고 내가 원하는 훨씬 나은 상황과 분위기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책을 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아파 응급실을 들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 책의 내용을 체험하게 되었다. 응급실 우리 침대 옆에 누운 아저씨 한분이 복통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검사를 위해 대기 중이었다. 그런데 많이 아팠는지 검사를 빨리하지 않는다고 온갖 욕설과 고성으로 응급실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었다. 몇몇 보호자는 같이 큰 소리로 대응하기도 하고 욕설로 마

생각에도 리듬이 있다.
박자만 맞춰주면 어떤 부정적 생각도 순식간에 날아간다!



주하기도 했다. 심지어 한 간호사는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을 하여 진정시키려고 시도하였다. 헌데 그 아저씨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세상 떠나갈 듯 더 고성과 욕설을 읊조렸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베테랑 간호사가 그 아저씨에게로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많이 아프시죠? 그리고 검사가 빨리 진행되지 않아 많이 짜증나시죠? 라고 첫마디를 상대방의 상황에 맞는 리듬에 맞춰서 입을 떼니 기적처럼 아저씨는 입을 다문 채 그 간호사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고선 그 아저씨는 욕설과 고성대신 그간 자신의 처지에 대해 늘어놓았다. 다 듣고 난 간호사는 이해하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을 하니 그 아저씨는 그때서야 누워서 못다 푼 분을 삭이고 있었다. 그렇다 그 베테랑 간호사는 그 화가 난 아저씨의 상황에 맞게 리듬을 맞춰주니 아저씨의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남은 것이다.

그 순간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이 떠올랐다. 이거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그 책에 있던 내용이 고스란히 눈앞에 재현된 것을 보고 더 믿음을 가지고 이 책을 읽어 나갔다. 리듬을 맞춘다는 것은 다른 말로 "공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스스로 나에 대해 공감하는 것과 타인에 대해 공감하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더욱이 이 책에서는 생각은 물결처럼 퍼져 나가는 에너지 덩어리다(아인슈타인)라는 말처럼 과학에도 그 기반을 두고 있어 더욱 현실적인 부분을 터치해준다. 육아에서부터, 고부간의 갈등, 직장생활에서의 갈등, 부모 형제 등 가족 간의 갈등, 스스로 화가 나는 순간들 등에 대한 내용들처럼 내가 생활하는 일상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들을 소개 하고 있다. 전부의 내용을 공감하진 않지만 상당부분 나에게 그 의미와 원리를 이해시키고 제공한다.

아울러 이 책이 나에게 주는 감동은 현재 나를 돌아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나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내가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변화할 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내 인생에 아주 크고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선순환의 중심에는 리듬(rhythm)이라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리듬을 맞추면 죽어가는 사람의 의식도 깨어난다(아널드 민델)" 책 속에 담겨진 말이다. 이처럼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그 위대한 리듬의 원리에 빠져보길 바라며 나에게 이런 리듬이 있어 입사이후 처음 맞이하는 항공청 생활이 낯설지만은 않게 느껴진다.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며...

우리 직장인들은 언젠가는
지금의 조직생활에서
퇴직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된다.

양양공항기상실 | **권중모**

퇴직준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다. 젊은 시절 나 역시 퇴직이라는 말이 남의 일이고 나에게는 해당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퇴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 나이에 접어들었다. 퇴직하신 선배님들을 만나면 모두가 하시는 말씀이 현직에 있으면서 퇴직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꾸준히 준비하라고 하셨다. 그때는 그 말씀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야 그 나이에 접어드니 그 분들의 말뜻을 이해할 것 같다. 그러고 보면 젊은 시절부터 노후준비를 한 것도 아닌데 취미생활로 지금까지 꾸준히 해온 것이 운 좋게도 노후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 30대 무렵 우연한 기회에 서예라는 것을 접하면서 시작한 것이 나의 멋진 두 번째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다.

30대초 3교대근무를 마치고 쉬는 날 지인이 서예학원에서 만나자 하여 찾아갔는데 붓 한 자루, 화선지 한권을 사주면서 서예를 해보라고 권유해서 처음 서예를 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일 년만 쓰면 천하의 명필이 되지 않을까?' 라는 큰 기대를 안고 시작하였는데 한 달이 지나고, 일 년이 지나고, 십년이 지나도 참으로 어려운 것이 서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때 선배 작가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십년을 써야 내 이름 석 자를 쓸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서예를 시작한지도 벌써 삼십여년이 흘러갔다. 이제야 비로소 서예란 무엇인가를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다.

서예를 시작하고 1년 만에 공모전에 처음으로 출품하여 입상을 하면

서 난 내가 서예에 대단한 소질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해부터 3년 동안 공모전 출품만 하면 낙선되는 게 아닌가? 그때야 비로소 서예에는 큰 소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서예를 그만 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서 받던 선생님께서 '여기서 그만두면 그동안 붙잡은 세월이 허무하지 않겠냐?' 라는 말씀에 다시 붓 잡고 놀기를 20여년 '소질이 없으면 노력이라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간 날 때 마다 서예를 접한다는 계획을 잡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오늘 날 서예가로 살아가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서예를 시작한지 15년 2009년 강원서예대전에 출품하여 대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나의 서예인생의 전환점이 되는데 대상을 받게 되니 어께는 더 무거워지고 주위에서 나의 작품에 대한 평가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면서 더욱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감에 좀 더 깊이 있는 서예를 접하고자 시간이 날 때마다 서실에서 생활하다시피하면서 서예공부에 매진한 결과 전국의 많은 공모전에서 초대작가 인준을 받아 서울과 강원도에서 서예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태백에서 태백서우회란 단체를 설립하여 무료로 서예 지도를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태백문화원에서 주말에 서예 강사로 서예보급을 하고 있다. 또한 충효사상 실천의 일환으로 1가정 1가훈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매년 행사를 통해 무료로 가훈써주기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 태백시민대상(문화예술부문), 한국문화예술총연합회장 공로상을 수상하였으며, 이것을 계기로 서예가로서 앞으로 무었을 해야 할 것인가를 더욱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된다.

앞으로 멀지 않아 나 또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 아직도 부족한 점은 많지만 지금까지 자의든 타의든 꾸준히 준비해서 얻은 것들을 이제는 주위에 나누어 주면서 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공무원미술협의회에서 활동하면서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재능기부자(서예)로 등록되어 있어 장애인 학교, 노인복지관등에서 재능기부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나 여건상 응하지는 못하고 있다. 퇴직하고 건강과 시간이 허락한다면 많은 이들과 함께 서예를 즐기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앞으로 멀지 않아 '주무관 권중모가 아닌 서예가 권중모'로 멋진 제2의 인생을 시작해 보려고 한다.

끝으로 많은 이들에게 서예예술을 한번 쯤 접해보라고 권유해 보고 싶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서예가 최고라고 자부한다. 전통문화 계승과 정신수양에 좋고 붓 잡고 있을 때는 모든 잡념 잊을 수 있으며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면 커다란 성취감을 얻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취미 활동이 어디 있으랴...

서예를 하면서 가슴에 와 닫는 시가 있어 한수 올려본다.

踏雪野中去 (답설야중거)

西山大師 詩 (서산대사 시)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답설야중거 불수호란행)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
(금일아행적 수작후인정)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자국 어지럽게 남기지 말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두 아이의 일하는 엄마로 살아가기

김해공항기상대 | **황혜경**

2012년 4월, 첫째 아이와 처음 눈을 마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겨울,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기와 만나기를 기다리며 아기가 태어나기 한 달 전 저는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몸도 많이 무거워졌고 아기와 만날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아기는 엄마뱃속에 있는 게 갑갑했는지 휴직에 들어갔던 그 주 주말 밖으로 나오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기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빠르고도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초보 엄마에게 육아는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첫째가 첫돌을 맞이했을 즈음 동생이 생겼습니다. 첫째가 어느 정도 컸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기였고, 그해 겨울 둘째가 태어나 저는 연년생 엄마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6년의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커 갈수록 제 이름보다는 승우엄마, 지우엄마로 불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 역할의 큰 비중은 '엄마'였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저는 단지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엄마, 놀이터에서 신나게 같이 노는 엄마였습니다. 엄마와 아내로서의 6년이라는 시간이 어느덧 흘러 아이들은 7살, 6살이 되었고 저는 30대 초반에서 이제는 3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2018년10월, 이제 저는 복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복직날짜와 발령부서가 나오고 복직 전 다시 새로운 역할을 맡을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엄마도 회사에 갈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엄마도 회사에 다녔었고 회사에 다시 나갈 거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터라 아이들은 조금은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걱정스런 놀람은 아니라 신기해하는

놀람 정도였습니다. 아이들은 금방 이해를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태권도장에 나름 동선을 짜 봅니다. 복직을 이주일쯤 앞두고 적응시간을 가지고자 사전 연습도 합니다. 다행히도 적응을 잘 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10월15일 진짜 복직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실전입니다. 걱정 반 설렘 반으로 밤새 잠이 오질 않아 뒤척였습니다. 복직 첫날이라고 남편이 월차를 내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첫 출근을 했습니다. 오랜만의 출근이라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라는 마음가짐으로 서두르지 말고 가자고 생각했습니다. 금방 퇴근시간이 되었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저녁밥은 잘 먹었는지, 잘 지내고 있을지 살짝 걱정이 되었습니다. 김해공항에서 1시간 반을 달려 만난 아이들은 제 걱정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재밌고 즐거운 하루였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들도 저에게 되묻습니다. "엄마는 오늘 하루 어땠어?"라구요. 저도 대답합니다. "엄마도 오늘 재미있었어."

10월이 어느덧 다 가고 11월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서툰 것 투성이지만 아이들에게 저는 일하는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먼저 퇴근하는 날에는 아이들에게 아빠는 요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인 저도, 아빠인 남편도 조금씩 역할변동이 일어난 듯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서로서로 그 틈새를 메꿔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매일 잠자기 전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승우지우야, 밤사이 아프지 말고 열나지 말고 푹 자고 기분 좋게 일어나자!' 오늘 밤도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저도 잠자리에 듭니다.

우리 가족의 문화유산 답사기

'안동 하회마을' 편

2018년 안동 탈춤페스티벌 기간이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다.

김포공항기상대 | 류시찬

휴일마다 직장생활을 하는 우리 부부는 늘 쉬고 싶고 초등학생인 아들과 딸은 늘 어딘가 가고 싶어 안달이다. 그렇다고 매주 집에만 있기에는 좋은 부모가 아닌 것 같은 부담감에 이번주말에는 어디한번 가볼까하고 늘 고민에 빠지곤 한다. 아이들은 즐거움을 우선시하기에 놀이공원이나 아쿠아리움 같은 곳을 선호하고 나와 집사람은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조금의 교육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곳을 선호하기에 우리 가족의 여행장소 선정은 늘 어려운 일이다. 많은 논의 끝에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많은 안동 하회마을에 가 보기로 했다. 마침 2018년 안동 탈춤페스티벌 기간이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다.

춘천에서 안동까지 3시간 정도를 달려 안동 하회마을에 도착했다. 하회마을이 있는 곳은 낙동강이 휘감아나가는 안동 서쪽의 평야지역으로, 남쪽으로만 흐르던 낙동강의 물줄기가 마을 앞에 이르러 태극을 그리며 휘감아 돌아나간다 해서 '물돌이동', 한자로 '하회'(河回)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하회마을은 현재 풍산 류(柳)씨들이 모여 사는 동족마을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을 등용하고 징비록을 쓴 조선시대 명재상 류성룡 대감을 배출해 낸 곳으로 유명하다. 또한 1999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해 더 유명해졌는데, 그만큼 옛 전통이 잘 보존되고 있는 우리나라 몇 안 되는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하회마을 전경(안동하회마을 보존회 제공)

하회 마을에는 몇몇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그 하나는 최근 상영되었던 '명당'이란 영화와 같이 하회마을이 우리나라 최고의 명당 중 하나라는 이야기이다. 지금의 풍산 류씨 일가들이 명당을 찾아 마을에 들어오기 전 풍수에 밝은 지관의 조언에 따라, 마을 밖 큰 길가에 정자를 짓고 지나가는 나그네와 걸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등 많은 공덕을 쌓은 뒤에

야 이주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선조들의 공덕과 조선 최고 명당의 기운 덕분인지 풍산 류씨는 조선 중기 이후로 유명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였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하회탈 이야기이다. 옛날 하회마을에는 손재주가 좋던 허도령이 살았는데 어느날 꿈에 신이 나타나 백일동안 정성을 다해 하회 별신굿 탈을 만들라고 했다고 한다. 허도령은 신의 계시로 생각하고 집 앞에 금줄을 치고 누구도 들어오거나 보지 못하게 하고는 탈을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허도령을 사모하던 처녀가 그만 마지막 탈을 만들던 허도령을 훔쳐 본 후 허도령은 피를 토하고 죽고 만다. 그래서 그가 만들던 마지막 탈이었던 이매탈은 현재까지도 턱 부분이 남아있지 않은 채 전해진다고 한다.

하회탈

하회마을 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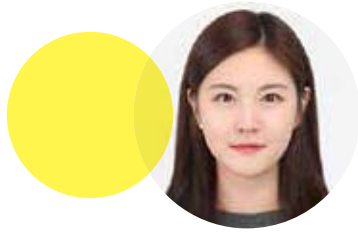
하회마을에는 예전 문화유산인 오래된 가옥들이 많은데 주요한 살림집들로는 대종택인 양진당이 있고, 서애 류성룡 대감의 종택으로 소종택인 충효당이 있으며, 그밖에 하동고택, 북촌댁, 남촌댁 등이 있다. 양반 가옥의 전형을 이루는 이 집들 가운데에는 보물로 지정된 곳이 둘,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곳이 아홉이나 된다. 또한 마을 중심길을 벗어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나타나게 되는 멋진 소나무 숲인 만송정과 기암절벽으로 아름다운 부용대가 있다. 하회마을의 길들은 마을 중앙에 있는 삼신당을 중심으로 방사선형으로 뻗어 있는데 거의 다 흙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하회마을이 연꽃이 물 위에 뜬 형상이라 돌담을 쌓으면 무거워 가라앉는다고 하여 돌담 말고 흙 담을 쌓은 것이라고 한다.

하회 별신굿 탈놀이

이번 여행의 백미는 하회 별신굿 탈놀이 구경이었다. 오후 2시부터 한시간 가량 진행된 별신굿은 조선조 양반 및 스님들의 일탈을 풍자한 탈놀이로 수많은 외국인을 포함한 관객들과 함께 하여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 모든 체험과 관람을 마치고 안동 전통 음식인 간고등어 구이 정식과 안동국밥을 맛있게 먹었다. 춘천으로 향하는 길 다음에는 또 어느 곳을 갈까 행복한 고민에 빠지며 이번 여행을 마무리 한다.

너의 이름은...

최근 우연히 쌀쌀해지는 공기에 딱 어울리는 영화를 한편 보게 되었다.
제목은 〈너의 이름은.〉. 2016년에 개봉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이다.



김포공항기상대 | **안혜인**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그저 타임워프를 소재로 했다고 해서 식상할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떼우기용으로 본 것이 나의 인생영화중 하나로 남게 되었다. 사실 생각해보면 터무니없는 판타지 속 주인공들의 뻔한 사랑이야기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영화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내가 느끼기에도 내용이나 장면들이 제법 훌륭했다.

영화를 보자마자 느낀 것은 장면이 너무 예쁘다는 것이었다. 빛을 표현하는 기법과 카메라로는 현실에

서 담을 수 없는 각도를 담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계속 보면서 '예쁘다', '사진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실제로 이 영화의 배경이 된 마을과 장소들이 있는 곳을 성지순례 하는 투어가 영화 개봉 후 유행했다고 한다. 언젠간 나도 꼭 가볼 생각이다.

그리고 뻔하다 생각하면서도 보는 내내 점점 빠져드는 나를 발견하면서 스토리 전개가 제법 탄탄하다고 생각했다. 중간중간 안타까움에 먹먹하면서도 결국은 해피앤딩이라서 더욱 마음에 들었는지도 모른다.

가벼운 마음으로 보게 된 영화가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영화를 다 보고 내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폭풍검색을 해보다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바로 영화 제목에 대한 것이다. 이 영화의 제목은 '너의이름은.' 감독은 이 제목 끝에 붙는 점 '.' 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는 '너의 이름은 000'이 될 수도, '너의 이름은?'이 될 수도, '너의 이름은 알고 있어'라는 뜻이 될수도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됨으로써 관객이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도록 한 장치인 것이다.

영화를 보고나서 여기저기 이 영화를 추천하고 있다. 그래서 이글에도 줄거리를 굳이 담지 않았다. 아름다운 장면들과 이야기들을 직접보고 같은 것을 느끼고 싶어서이다. 사실 나는 원래 영화 장르 중에서도 특별히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데, 애니메이션은 아이들의 장르라는 편견이 늘 싫었다. 어렸을 때 봤던 애니메이션들도 어른이 되어서 보면 또 다른 시각으로 보이고 또 다른 의미를 찾게 한다. 문득 생각해보면 애니메이션은 대게 행복한 내용이라서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

스무 살로 돌아가는 날

나에게는 스무 살 때 만난 친구들이 있다.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많은 과 학생들이 있었지만
마치 자석에 끌리 듯 우리는 같이 한데 모였고,
수많은 추억을 만들며 4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했다.

울산공항기상대 | **조현정**

갓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아직 외모에 촌스러움이 뚝뚝 묻어나는 시절부터 만나 지금은 어느덧 13년째 인연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모두 고향이 다른데다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각자 취업을 하면서 전국 각지로 흩어져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아직도 매일 연락하고 1년에 몇 번씩은 꼭 만나는데 이번엔 충북 단양에서 만나기로 했다.

세종, 밀양, 김해에 사는 우리는 단양으로 가는 대중교통편을 먼저 알아보았는데, 생각보다 교통편이 좋지 않아 대중교통으로는 도저히 1박2일 여행기간동안 무리인 것 같아 우리는 각자 운전을 해서 모이기로 했다. 나의 첫 장거리 운전이었다. 가도 가도 끝나지 않던 경상도. 새삼 경상도 땅의 규모를 실감할 수 있었다. 3시간을 달리고 달려 드디어 단양에 도착! 단양에 도착하자마자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패러

글라이딩을 하러 갔다. 패러글라이딩 복장으로 갈아입고 사진을 찍으며 순서를 기다렸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왔고 있는 힘껏 바람에 저항해서 절벽아래를 향해 달렸다. 절벽을 지나 공중에 뜨자마자 아래로는 남한강이 구불구불 흐르고 산에는 단풍이 울긋불긋 물들어 있었다.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연신 입에서 감탄이 나왔다. 뛰기 전엔 조금 무서웠는데 막상 착륙하는 순간이 되니 아쉬울 정도였다.

즐거운 비행을 마치고 장을 보고 숙소로 들어갔다. 시골에 있는 한적한 펜션이었는데 사장님께서 집을 어찌나 잘 꾸며놓으셨던지 우리는 연신 '좋다'를 외치며 집 구경을 했다. 야외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도 구워먹고 친구들과 오랜만에 술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이야기도 하며 즐거운 밤을 보냈다. 다음 날엔 도담삼봉도 보고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먹기도 하고, 이동하는 길에 우연찮게 예쁜 곳을 발견해서 즉석으로 내려서 사진도 찍었다.

사실 맛있는 거 먹고 관광지 구경하는 것은 그다지 특별할 것 없는 여행이지만 이 친구들과 함께하면 아무것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자체로 즐겁다. 차안에서 노래도 부르고 운전이 미숙한 나를 위해 조수석에서 옆도 봐주고 그냥 시답잖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항상 즐겁다. 왠지 친구들을 만나면 처음 만났던 스무 살로 돌아가는 기분이 든다. 몸은 나이를 먹지만 영원히 이렇게 철없이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이다. 항상 즐거운 우리의 다음 여행지는 경북 문경으로 정했는데, 약속하지 않았지만 우린 문경에서도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며 또 하나의 추억을 쌓게 될 것이다. 혹시 이 글을 읽으며 생각나는 친구가 있다면 만나서 잠시나마 그 시절로 돌아가 보시길 바란다. 언제나 즐거운 친구들과의 여행기 끝~

잠자는 숲속의 공주병
클라인-레빈증후군

공주가 아닌 왕자에게 찾아오셨다

관측예보과 | **조원제**

좌충우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중2를 키우는 부모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고 가시밭길을 가는 느낌이 든다. 남자아이라서 그런지 활동량도 많고, 활동반경도 점차 넓어지는데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키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가족보다는 친구가 좋아서 놀기 바쁘고, 친구가 우선시 되어 말도 잘 안 듣고 반항도 하고 다들 겪는 사춘기시기를 걷고 있는 우리 아들!! 빨리 이 시기를 벗어나자!!

여름방학을 끝내고 첫 주말 친구 집에서 놀다가 잠을 자고 온다며(일명:파자마파티) 엄마에게 허락을 받고, 집에 오지 않았는데 다음날 행사가 있어 아들을 저녁에서나 볼수 있었다. 갑자기 잘 다니던 학원을 그만 다니겠다고 앞뒤 설명 없이 말을 꺼내놨다. 이유를 물어봐도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여 일방적으로 질문을 계속 이어 나가면서 이틀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고 사춘기 시절엔 그럴

수 있지 하며 이해하고 넘어갔다. 다음날 출근길에 학교에 데려다 주고 하루 일과를 보내고 집에 와보니 아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곤해서 자는 걸로 생각하고 푹 재웠는데, 다음날도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잠을 자려고 한다. 어제와는 다르게 행동이나 의사표현도 적어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잠만 자려고 해서 며칠 동안 지켜보느라 힘든 나날을 보냈다.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여행을 취소 할 수 없어 불편한 아이를 데리고 여행지를 떠났는데 거기서도 여행에는 관심 없고 잠을 자려고 해서 첫날은 숙소에서 쉬다가 오후에 나왔는데 여전히 데리고 다니기 힘들었다. 어쨌든 여행을 끝내고 돌아와서 마지막 날 도착하고 나니 애 상태가 많이 호전 되었고 하루가 더 지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

무슨 원인인지도 모르는 병으로 일주일을 정신없이 보내고 일상적인 생활을 했고 2주 뒤부터 똑같은 증상을 보였다. 추석연휴라서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연휴 마지막 날 대학병원을 가서 진료받기로 예약을 하였다. 연휴기간 내내 잠만 자고 일상생활을 전혀 하지 않아 걱정이 많이 되었고, 그래서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봤다. 병원에 3일 입원해 있으면서 특별한 처방은 없었고 검사결과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클라인-레빈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일명 잠자는 숲속의 공주병이라고 했다.

일 년에 수차례에 걸쳐 1주에서 2주, 외국사례에서는 몇 달 동안 잠만 자는데 수면 도중 식사와 용변을 위해서만 깨어나고 20~22시간을 자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 바로 검색을 해보니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듯하면서도 똑같진 않았다. 일치하는 증상은 계속 잠자는 것(4일정도), 생활반응 없이 무기력하게 있다는 것(핸드폰, 축구를 좋아하는데 전혀 하지 않음)이다. 이번이 두 번째 나타난 증상인데 1주일정도만 잠에 취해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뒤는 다시 멀쩡해지는 현상이 똑같았다.

그동안 자라면서 크게 아픈 곳이 없어 걱정 없이 키웠는데 듣도 보도 못한 희귀한 레빈증후군으로 인해 앞으로 잘 지켜봐야겠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일이구나’를 느껴본다.

반려동물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정보기술과 | 김미애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니께서 키우시던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 두 마리를 낳았는데 그 중에 눈이 똘망똘망하고 더 귀여운 아기 강아지를 골라서 집으로 데려왔었다. 가족들 다함께 이름 고민하다가, 내 이름을 따서 '미미'라고 지었다.

초등학생이였던 나는, 그 하얗고 조그만 강아지가 너무너무 신기했다. 아침, 저녁으로 쳐다보고 만지작 만지작하고, 미미를 졸졸 쫓아다녔다.(지금 생각해보면 미미는 엄청 귀찮았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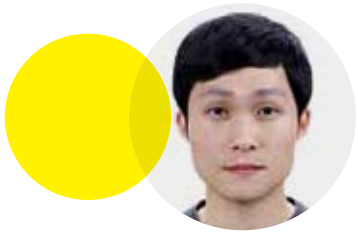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하얀 털뭉치가 옆에 있고, 함께 기지개를 피며 일어났다. 화장실에 갈 때는 졸졸 뒤를 따라와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부시럭 소리만 들려도 간식 봉지 소리인줄 알고 귀를 쫑긋 세우고 뛰어왔다. 밥을 먹고 있으면 아련하게 나를 쳐다보고, 내가 바닥에 앉아있으면 다리 사이로 파고들고, 낮이 되면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에서 세상 모르게 낮잠을 자면서 코도 골고, 잠꼬대도 했다.

미미와 함께하면서, 언젠가는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것 같다. 안 한 것 보단, 하기가 싫었던 것 같다. 그러나 미미가 15살 쯤 되었을 때, 눈에 띄게 늙어가는게 보였다. 귀가 어두워져서 내가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듣고 자던 잠을 계속 자고, 까만 구슬같던 눈동자의 색도 회색으로 흐려졌다. 배변 실수도 잦아졌고, 산책을 가거나 놀이를 하면 금방 지쳐 헥헥 되었다. 병원에 가보니 심장이 많이 안 좋아져, 몇 달 버티지 못 할 거라고 했지만, 고맙게도 미미는 내 곁에 2년이나 더 있어줬다.

반려동물과 함께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신경을 써야하는 일이 많아지고, 장기간 집을 비우기도 어렵다. 몸이 힘들고 아플 때, 강아지가 사고를 쳐놓으면 짜증이 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도 있었다. 아픈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금전적 문제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나는 강아지를 키우게 된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이들이 주는 행복이 몇 배나 더 크니까....

ZOOM IN MOVIE

AIRPORT



제주공항기상대 | **최창호**

우리가 가족들과 해외로 여행을 가게 되거나 회사의 중요한 일로 출장을 가게 되면, 우리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있는 모습일 것이다.

공항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치고 있다. 한 번 쯤 되돌아보는 것도 꽤 흥미롭고, 때로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와 관련된 영화 2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영화 '**롤러코스터**(Fasten Your Seatbelt, 2013)'는 특이하게 영화배우 하정우가 감독으로 데뷔한 작품이고, 영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코믹적인 요소가 강한 저예산 영화이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주인공인 한류스타 마준규(정경호)가 기내 안에서 개성 강한 승무원과 승객들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가 주 내용이고, 마지막에 태풍으로 인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착륙하면서 영화가 끝이 난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면 갑작스러운 난기류를 만나게 될 때가 있고, 영화 '롤러코스터' 주인공처럼 그 짧은 순간에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갈 때가 있다. 그 때 우리는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할 때까지 아이러니하게 인생을 되돌아보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영화 '**김종욱 찾기**(Finding Mr. destiny, 2010)'는 동명 뮤지컬로도 유명한 작품이다. 인도로 여행을 간 지우(임수정)가 첫사랑을 만나면서 영화가 시작된다. 그리고 여주인공이 '첫사랑 찾기 사무소'에 찾아가 기준(공유)과 같이 그 첫사랑을 찾아 나서게 되지만, 결국 첫사랑이 아닌 기준과 새로운 인연으로 발전되면서 영화가 마무리된다.

이 영화에서 지우는 인도로 가는 기내 안에서 첫사랑을 만나게 되고, 몇 년 뒤 공항에서 다시 재회하지만 헤어지게 된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 장면인 에필로그에서 지우와 기준은 서로는 기억을 못하지만, 과거에 공항에서 서로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된다.

물론 영화라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처럼 공항과 기내 안에서 어쩌면 우리의 인연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징크스

역시 나에게는 징크스가 있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다. 진짜 징크스일까?

제주공항기상대 | **임정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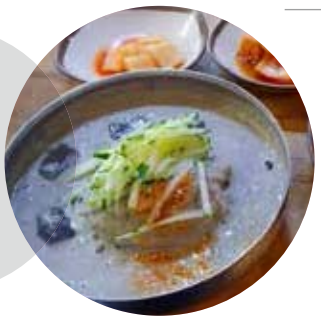
이제 명백해졌다. 입사 2년 차, 아무 생각 없이 진주 남강 유등축제를 보러 갔다. 3주 뒤, 진주기상대로 발령이 났다. 입사 3년 차, 서울에 슈퍼컴퓨터 교육이 있어 다녀온 2주 뒤 김포공항기상대로 발령이 났다. 입사 12년 차, '이번 여름 제주도로 휴가 갈까?' 남편에게 물어보지 말았어야 했다. '그래 더운데 집에 있는 게 최고지!' 하고 휴가 계획은 세우지 말았어야 했다. 덕분에 이렇게 발령받은 근무지에서 휴가를 보내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 5년 육아휴직을 제외하고 5번의 발령 중 3번이 이와 같았으니 일명 "발령 징크스" 되시겠다.

집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나의 제주 발령으로 인해 분위기가 무거워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4일을 전적으로 아이들을 케어 하셔야 하는 시어머님 걱정과 엄마의 부재로 인한 두 딸아이의 혼란과 엄마의 부재가 표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신랑의 책임감으로 인해 문서가 나고 첫 출근까지 우리집은 무거운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하지만 나는 전국 어디에서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국가직 공무원의 숙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족들을 설득시킬 수밖에 없었고, 모든 식구들이 4일 간의 부재를 잘 적응해주길 바랄 뿐, 나 또한 불안한 마음은 가득했다.

어차피 제주에 발령 받은 이상 즐겁게 생활하리라 다짐했다. 제주도하면 관광지 아닌가? 근무지인 동시에 관광지에서 혼자 살게 된 나는 주변 아줌마들의 부러움을 샀다. 아줌마들에게는 나의 제주생활이 일탈로 보였으리라... 엄마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게 더 꼼꼼하게 아이들을 체크하고 시어머님과 신랑의 대한 감사함을 자주 표현하며, 군공항과 다른 민간공항의 업무로 인해서 지침들을 찾아보며 업무에 적응해갔다. 그리고 올해 세운 계획대로 나의 휴무일에 맞추어 제주도로 아이들을 데리고 온 남편과 함께 여름휴가를 보냈다. 기상대에서 가족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보면서 짠한 맘이 가시지 않아 하늘을 하염없이 쳐다보았는데 누가 보면 관측자의 임무를 다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내가 주부가 되고 난 다음 깨달은 것은 남이 차려준 음식이 맛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굳이 혼자 있으면서 만들어 먹기보다는 관광지의 이점을 십분 활용한다. 여기에 단점은 있다. 관광지라 물가가 싸지 않아 한끼만 외식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스케줄 상 첫 출근과 마지막 퇴근을 비행기로 하는 나로서는 교통비가 너무 부담스러워 돈을 허투루 쓸 수가 없다. 나는 알뜰한 주부이니까...ㅎㅎ 나는 누구보다 혼밥(혼자 밥 먹는 것)과 혼영(혼자 영화 보는 것)을 잘하는데 이럴 때를 대비한 나의 선견지명이 아닐까? 제주관사 근처에는 맛집이 많은 편이라 쉬엄쉬엄 걸으면서 맛집 탐방이 가능하며, 유명하다는 동문시장도 걸어갈 수 있으니 제주 특산물을 싸게 구입해서 먹기도 좋다. 이런 것들이 4일간 제주생활의 활력소인 동시에 가족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스스로 세뇌시키면서 제주생활을 하고 있다.

마지막 야근을 마치고 비행기로 퇴근해서 집에 가는 날이면 첫째 딸이 하굣길에 전화를 한다. " 엄마, 집이야?" "엄마 집이지~" "알았어~" 뚝!!! 하고 전화를 끊고, 엄마 퇴근을 확인하고 다음 스케줄을 간다. 4일 동안 엄마의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시작을 알리는 전화이다. 5살인 둘째 딸은 아직도 제주 가는 비행기를 타러 공항으로 갈 때면 울음을 터트린다. 그 모습을 보시는 시어머니는 둘째를 달래면서 그렇게 울면 엄마 마음 편하게 일하러 못 간다고 타이르신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도 들리는 둘째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가족과 떨어져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가하는 회의감이 들고, 반면 엄마인 동시에 직장인이니까 발령 받은 이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이율배반적인 감정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발령 받은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런 감정들로 힘들긴 하지만 나와 가족들은 최선을 다해서 적응중이다.



제주에 발령 받고 첫째 딸의 학교 공개수업과 상담, 둘째 딸의 운동회, 소풍, 가족들 생일 등 많은 행사들이 지나갔다. 다행히 쉬는 스케줄이라 그냥 참석한 행사도 있었지만 연가를 사용하여 제주를 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 타지에서 생활하는 나를 신경써주는 제주공항기상대 식구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복직하고 첫 근무지에서 즐겁게 근무한 기억을 남기게 해준 김해공항기상대 식구들에게도 감사드린다. 누구보다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마누라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남편과 아이들을 케어해주시는 시어머님에 대한 고마움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다. 그리고 두 딸들...엄마가 타지에서 일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만 그 전에 우리 잘 적응해 보도록 하자. 엄마가 다음에는 집 근처로 출장가거나 교육가도록 노력할게. 엄마의 징크스가 다음 발령지를 정해주지 않을까?^^

활주로

여수공항기상실 | **홍성훈**

오늘도 언뜻 유리창을 보니
활주로 위에 구름 한점 둥굴 등굴 떠 있네요
솜뭉치처럼 떠 있고요
그 밑으로 비행기 쑤우욱 내려 오고요
잠시 또 동굴이 구름 밑에서 비행기 쑥 날아 오르네요
활주로 주위로 산과, 바다가 널려 있는 그 위에 둥굴이 구름은
한 폭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방긋 방긋 웃는 구름으로 변해 가네요
그 구름을 보는 말없는 활주로는 땅을 점령하면서 의기양양 힘차 보이네요
평평한 마음으로 모진 바람과
힘찬 폭우와
차디찬 눈과
휘몰아치는 태풍과
수십년의 세월속에서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
비행기를 안전하게 가고 오게 하여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 주는데
일조를 하는 활주로
오늘도 구름한 점 둥굴 둥굴 떠 있는 솜몽치 구름을 친구 삼고
바람과 폭우와
눈과 태풍을 친구 삼아
오늘도 활주로는 마냥 행복해 보이네요

김종석 기상청장님 초도순시

10월 1일(월), 김종석 기상청장은 청장으로 부임하고 초도순시하여 주요업무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직원들과 토론의 시간을 보냈다. 특히, 공군에서 항공예보를 담당하셔서 항공기상청에 많은 관심을 주셨다.

SKY FESTIVAL 홍보부스 운영

인천국제공항에서 해마다 열리는 지역 축제인 SKY FESTIVAL(9월1일)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구름의 생성원리를 배워보고,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 및 풍향풍속계만들기를 만들어보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관·군 기상대 합동 워크숍

김해공항기상대는 10월 11일(목) 「관-군 기상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6개의 군공항 업무를 수행중인 김해공항기상대와 군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반기 임명장 수여식

7월 16일(월)에 하반기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보직 변경되신 두 과장님 파이팅!!! 승진하여 새로운 자리에서 시작하는 세분 축하합니다.!!! 잘 해 주실 거죠?

활기찬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소통 간담회

○ 활기찬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직급별 간담회, 소속기관 소토 · 공감투어, 공무직 등 근로자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항공예보생산의 현장을 가다

○ 기장과 부기장등 조종사 20명이 11월9일(금) 항공기상청 예보 현업실을 방문하였다. 항공예보의 수요자인 조종사들은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관측예보과장으로부터 궁금증을 해소하고 잘못 알고 있던점을 새롭게 이해시켜주는 등 소통의 시간이 되었다.

찾아가는 항공기상 고객 소통

○ 항공기상분석관 운영 1년을 회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생각하는 기상분석관 역할 환류 및 사용자가 원하는 기상정보제공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위해 항공교통기관, 항공사, 공항공사 등을 방문하였다.

공무국외여행(네덜란드)

○ 10월7일부터 13일까지 네덜란드를 방문하여 2018년 세계기상기술 엑스포와 WMO 기상측기 및 관측법 위원회 기술 컨퍼런스에 참석하였다. 세계기상기술엑스포는 기후 · 날씨 · 수문기상 예보와 계측 및 분석 기술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상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전시회이며, 항공기상청은 신기술 장비와 기상기술 등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자 참석하였다.

관제협업세미나

○ 10월31일 항공교통본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교육장에서 협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항공기상과 관제업무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상호협력이 필요하여 정기적으로 협업세미나를 운영하고 있다.

미래의 기상인을 꿈꾸는 김해공항기상대 방문

○ 미래의 기상인을 꿈꾸는 부산대학교 대기과학과 1학년 학생 10명이 11월 13일(화) 김해공항기상대를 방문하였다. 항공기상청 및 김해공항기상대의 기상업무를 소개하고 항공기상에 대한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항공기상청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자 간담회

지난, 9월13일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자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국토교통부, 공항공사, 항공사 등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항공기상청의 사업을 홍보 및 공유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소통의 장을 가졌다.

2018년 하반기 항공기상업무 발전워크숍

11월8일~11월9일 항공기상청의 중점사업을 공유하고 항공기상서비스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직원들의 화합과 소통을 강화 하기 위하여 2018년 하반기 항공기상업무 발전 워크숍을 강원도 양양에서 개최하였다.

겨울철 방재기상 업무 시작 선언식 개최

○ 11월16일 겨울철 방재기상 대책기간('18.11.15~'19.3.15.)동안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방재기상업무를 점검하고 다짐하는 2018년도 항공기상청 겨울철 방재기상 업무시작 선언식을 개최하였다.

항공기상청 고객서비스 헌장
(4S-Service)

항공기상청은 국내 유일의 항공기상업무기관으로서 신속 · 정확한 항공기상정보 제공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실천할 것을 굳게 약속합니다.

우리는, 고객에게 최상의 항공기상서비스(Superior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린 마음으로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개방 · 소통 · 고객참여를 확대하여 고객이 공감하는 서비스(Sympathetic Service)를 구현하겠습니다.

우리는, 항공기상서비스 혁신을 통한 고객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고객 만족(Satisfied Service)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우리는,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 · 경제성 ·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확한 기상정보 제공으로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le Service)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상청 직원 일동